

# David deSilva 박사 , 신약의 문화 세계

## , 세션 5, 가족과 가정

© 2024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신약성경의 문화세계를 강의하는 Dr. David deSilva 입니다 . 이것은 세션 5, 가족과 가정입니다.

가족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이며, 대부분의 개인이 일생 동안 가장 자주 접하고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회 단위입니다.

1세기에 가족은 어땠나요? 가족 구성원은 서로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발견하는 수많은 친족 언어의 일상적 맥락과 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 바울이 하나님의 양자 됨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일에 중요성을 부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형제자매를 교회 내부 관계의 주요 모델로 선택하여 어떤 종류의 공동체를 육성하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신약성경 비전의 풍성함을 다시 포착하고, 가족, 혈통, 친족의 행동 방식에 관해 말하는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고대의 현실과 윤리에 몰입해야 합니다. 친족 관계. 고대 세계에서 친족 관계를 어떻게 확립합니까? 미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구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위치, 위치, 위치라고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혈통이 사회 구조에서 개인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족보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이를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고 포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 개혁을 생각해 보면, 알려진 사회 집단의 일부가 되기 위해 혈통과 혈통을 추적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12지파의 가족 중에 검증 가능한 혈통이 없으면 그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가 내에는 내부 구조가 제공됩니다. 내부 계층은 계보를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같은 책에서 우리는 제사장 가문과 레위 가문의 혈통을 보존하고 명확히 표현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사회에서 개인의 공덕과 사회에서의 위치는 부모의 공덕, 가족이나 씨족의 공덕, 조상의 공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명예에 대한 논의에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사람의 명예는 그 사람이 태어난 가문의 명예, 즉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명예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토비트서의 외경에서 나옵니다. 토빗은 가족의 친구가 여행 중에 보관해 두었던 달란트 무게의 은을 모으라는 임무를 그의 아들 토비아스에게 보냅니다. 토빗은 그 사람의 혈통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럼 5장 11절과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토빗이 아사랴에게 물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어느 가문 출신이며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말해 보세요, 형제님. 아사랴가 대답했습니다. “ 왜 내 부족을 알아야 합니까? 그러나 토빗은 “형님, 당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네 동족 중 하나니 큰 하나냐의 아들 아사랴니라 그러자 토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신이시여, 형제님을 구해주세요.

형제여,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조상을 알고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은 선하고 고귀한 혈통의 친척이었습니다. 내가 스 말리야의 두 아들 하나냐와 나단을 알았으므로 그들은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나와 함께 예배하여 미혹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신의 친척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좋은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따라서 아자리아가 제공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력서는 그의 가족 혈통, 즉 그의 직계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토빗의 눈에는 그의 조상들의 신용 등급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그는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이 임무에 토빗의 아들 토비아스와 동행할 사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친족관계와 명예는 이러한 문화에서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종종 신학교가 아닌 다른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나는 '음,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즉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하지만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17절은 당신이 21세기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끔찍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그렇게 시작합니까? 편집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화에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의 의의는 자신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예수의 혈통을 살펴보고 설명함으로써 1세기 예수의 이야기를 여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태는 예수가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속자이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속자라는 본질적인 주장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은 매우 신학적인 장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아마도 스테레오 지침을 읽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족보의 또 다른 측면은 마태가 숫자 14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42대 계보를 제시하는 반면, 누가는 예수님의 56대 계보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항상 불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글쎄, 그건 마리아 쪽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족보가 42세대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56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훨씬 일찍 죽었기 때문에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상 수비학을 통해 다윗의 후계자로서 예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없는 히브리어에서는 문자와 숫자에 해당 문자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다윗의 이름 위에 dalet 과 다른 dalet을 합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14를 예수님의 족보로 암호화하여 세 가지 주요 사건인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포로생활을 분리함으로써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궁극적인 후손이자 씨로 말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햄릿은 이제 그의 양아버지가 된 삼촌 클라우디우스를 결눈질로 바라본다. 어느 시점에서 클라우디우스가 자신의 성격을 보여주는 연설을 한 후 햄릿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친절하다는 말은 온유하고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클라우디우스가 대신했던 햄릿의 실제 아버지인 형제와 같은 혈통이나 같은 종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스포일러 주의: 그는 실제로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어쨌든 친족관계는 같은 종류의 존재, 일종의 자연스러운 연결 속에서 같은 종류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이것은 종족 그룹의 민족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추적 가능한 혈연관계도 없을 수도 있는 그리스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만인과 비교하여 서로 친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인은 실제 혈통이 무엇이든 간에 같은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너무 다른 그룹과는 반대로 서로를 본질적으로 친족으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비유대인에 대한 자신들의 친족 관계를 광범위하게 인식했지만, 이는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광범위하게 확장된 족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지역적인 수준, 즉 부족 수준, 씨족 수준, 씨족 내 가족 수준에서

친족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친족관계가 작동하는 수준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이 대다수의 다른 종족 그룹, 다른 인종 및 다른 국가에 둘러싸여 소수자라고 생각하는 디아스포라에서 그들은 다른 유대인을 대하고 다른 유대인을 친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들 사이의 실제 계보적 연결이 가깝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에서 유대인이 대다수인 곳에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갈릴리나 유대에서는 우리 대부분이 어쨌든 유대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친족으로 간주되는 것이 더 좁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씨족을 친척처럼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족의 사람들이나 심지어 우리 씨족 외부의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기보다는 외부인처럼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마을을 행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유대의 한 마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모든 유대인들은 분명히 우리가 아닌 눈에 보이고 권한을 부여받은 외부 집단의 존재 덕분에 서로 더 긴밀한 관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비하면 우리는 모두 가족이다. 그러나 로마 집단이 사라진 후에는 우리 친족 그룹을 훨씬 더 좁게 정의하고 더 이상 그 마을의 다른 씨족 출신의 유대인을 우리가 가족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 관계는 다소 유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설정과 이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께서는 친족 집단에 따른 분열이든 유사성에 따른 분열이든 어떤 작은 분열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아브라함의 대가족을 주장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의 교리와 관행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비록 비록 족보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종류의

형제라는 점을 바탕으로 서로를 더 가까운 친척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의 친족의 이러한 작은 하위 집단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들로서 서로간의 관계를 계속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서로 갈라서지 말고 서로 형제와 같이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앓은뱅이 여인을 고치라는 도전을 받았을 때 그분은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며, 낫고 난 후 앓은뱅이 여인과 그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 불평하는 회당 관리들 사이의 본질적인 가족 관계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한 치유. 그는 삭개오를 세금 징수원으로, 유대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고, 유대에서 로마 점령군을 위해 일하고, 로마 점령군이 그들의 세금을 징수하고 그의 주머니에 경의를 표하고 안감을 대는 것은 적어도 그 과정에서 고정관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이 바뀌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순간 예수에게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로마 점령자들과의 동맹으로 인해 그들로부터 멀어진 후에 나머지 사람들과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예수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종종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지만, 저는 그것을 두 형제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서 그 소년들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좋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아마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성향에 대해 불평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아닌 집단에 속한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저 죄인과 세금 징수원들도 유대인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확장된 친족 그룹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그들을 생각하는 더 좋은 방법은 죄인이나 세금 징수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두 형제를 서로 형제로 만드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식으로 어느 누구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완전히 분명히하는 방식으로 서로 상충되는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신약성서 해석을 위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고대 세계에서 친족 관계를 지배하는 윤리인 에토스(ethos) 일 것입니다. 친족관계가 확립된 곳마다, 친족끼리의 관계에서 외부인과의 관계를 안내하는 것과는 다른 윤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친족 관계가 친족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상호작용, 협력 대 경쟁의 기본 모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강의에서 고대 세계에서는 많은 것들이 한정된 상품으로 간주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얻으려면 곡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적게 가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좋은 경제는 특히 그러한 상품을 획득하기 위한 상호 작용을 위한 일종의 기본 모드로서 경쟁을 촉발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한 가족이 다른 사람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상품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친족 단위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상품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했습니다. 전체 친족 단위의 힘, 단결, 이익은 모든 구성원의 공동선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제자매의 관계는 고대 세계에서 인간 사이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유대 관계 중 하나로 종종 간주되었습니다. 우정의 대명사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든 것을 공유할 것입니다.

친구들은 공통의 가치와 약속을 공유할 것입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관심사를 살펴보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의 실천의 모범이자 정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제 20세기와 21세기 미국, 그리고 적어도 캐나다와 서유럽에서는 형제 간의 경쟁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이제 제 아내와 저는 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형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대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받아들여지고 흔한 일이다. 그리고 아마 고대 세계에서 형제들이 경쟁을 펼친다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들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윤리학자들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가족들은 형제자매 간의 경쟁을 조장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습니다. 이는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이기고 다른 형제를 희생하여 무언가를 얻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모험에서는 서로를 능가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항상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희생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이익이 증진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흔히 형제간 경쟁에 관해 이야기할 때, 고대 세계 사람들은 흔히 카드메인의 승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드라마를 많이 읽지 않았다면 이 문구는 우리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오이디푸스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익숙하다면 그것이 단지 오이디푸스와 그의 세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이디푸스가 카드모스의 후손이기 때문에 카드메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비극이 진행된 후, 오이디푸스의 아들들은 전쟁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테베를 정복하려는 페르시아인들의 편에 섰고, 물론 일방적으로는 테베 군대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투에서 서로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형제 관계의 가장 낮은 지점인 최저점을 나타냈기 때문에 Cadmean 승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이기기 위해 노력했지만,



형제나 자매와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윤리학자들은 형제자매들 사이에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도 형제자매는 상대방의 명예를 높여야 했다. 따라서 형제로서 나는 단지 내 자신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면 내가 얻은 명예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내 형제나 자매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얻은 특권

물론 나는 결코 자매나 형제를 희생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를 때,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독교적 친족 관계와 관련하여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협력과 더불어 친족 정신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측면은 신뢰였습니다.

서로와 가족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기만과 거짓말이 종종 외부인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완벽하게 적절한 전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경인 『유디트(Judith)』에서 유디트는 적 장군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자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좌우로 이빨을 사이에 두고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전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스포일러 주의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이 장군과 그의 군대에 의해 포위된 마을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정말로 가까워지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은 그녀 자신의 친족 집단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완벽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는 사실상 귀하의 친족을 외부인으로 대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신뢰와 약속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화합, 조화, 가치 공유, 물품 공유로 특징지어졌습니다. 형제자매들은 공통의 이상, 가치, 목표를 공유해야 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형제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는 명령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 문학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로마 윤리 문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의 단결과 조화를 유지하려면, 형제나 자매의 사랑을 잃고 친족의 특징인 조화를 깨뜨리거나 깨뜨리는 것보다 상속 재산의 일부를 잃는 논쟁에서 패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러한 단결과 조화는 필요에 따라 친족 간에 자원을 공유하는 것에서도 표현됩니다. 갈등이 생기거나 부상이 발생하면 형제자매는 용서와 화해를 구해야 합니다. 서로의 부끄러운 일이나 부끄러운 일을 외부인에게 숨기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외부인을 대하거나 대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정신입니다. 이 책은 형제자매 사랑의 윤리에 대한 훌륭한 입문서입니다. 형제자매의 사랑인 필라델피아는 신약성서에서 매우 두드러진 윤리적 용어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훌륭한 입문서를 보려면 때때로 형제애를 언급하는 형제애에 관한 플루타르코스의 소책자를 읽어보세요.

이는 고대 세계의 친족 정신에 대한 이상을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창입니다. 고대의 가족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가정과 그 구성원,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최소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노예로 구성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설명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각 쌍의 한 구성원이

실제로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남편, 주인은 모두 같은 사람이고, 따라서 가정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기본 가구에는 다양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미혼 형제자매와 여성 관계가 한 가구의 일부가 되어 이전에 설명한 가구와 함께 그 단위의 일부로 함께 사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남편이나 아내 중 살아남은 부모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결혼한 형제자매와 그들의 자녀를 더 큰 단위로 통합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민족 내에서, 유대 민족 내에서, 종종 부족이나 씨족 내에서 결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기원후 1세기의 율리보다 BC 3세기의 율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외경인 토빗서를 살펴보면, 토빗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일종의 음행으로 간주합니다.

유대인이 유대 민족 밖에서, 심지어 지파 밖에서도 결혼하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은 일반적으로 결혼이 가족을 하나로 모으기 때문에 중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두 잉꼬가 개인의 동기에 따라 결정한 행위가 아니라 가족 간의 동맹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개념적으로 항상 일부 남성의 가정에 속해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아버지의 가구. 결혼 후 남편의 가정.

그리고 이혼이 일어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다양한 종족 집단에 따라 이혼이 다르게 다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남편들만이 입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는 외국의 압제자들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지역에서는 아내들이 이혼을 시작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더 쉬웠을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소수일수록 지배적인 문화의 법률 체계에 더 호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내가 가장 가까운 생존 남자 친족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다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형제가 됩니다.

그녀는 신부 아버지의 상속 재산 중 일부인 지참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신부는 그것을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갔다. 따라서 사망이 부부가 헤어질 때까지 결혼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새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고대 가구가 적어도 현대 미국 가구와 매우 다른 점은 가구가 단순히 소비 단위가 아니라 생산 단위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집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섯 명이 함께 생산하는 것은 재활용품과 쓰레기 외에는 별로 생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소비합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우리와 같은 가구도 기본 생산 단위였습니다. 상원 의원과 그의 가족이 로마에 거주하고 실제로 시골 영지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가장 고귀한 귀족 수준에서 이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일부, 가족의 일부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만이 아니라 주인과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 상원 의원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배후지에서 많은 영지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노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 가구조차도 그 확장되고 광대하게 확장된 가구 단위에서 나오는 대규모 농업 벤처를 갖춘 생산 가구였습니다. 이제 훨씬 더 소박한 환경인 장인의 집으로 가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의 친가정으로 추정하는 가정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인인 조셉(Joseph)은 그의 아들들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그 기술에 합류했으며, 그들은 함께 일하여 수입을 늘리고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집안의 여자들, 즉 마리아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수의 이복자매들 역시 남자들의 일을 관리하는 것을 돕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할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생산 가구 등을 위해 장부를 보관했는지 알아내는 것은 실제로 놀랍습니다. 아니면 고대 세계에서 여성의 일이라고 불리는 일에 참여함으로써요. 따라서 그들은 남성이 생산 단위이자 소비 단위가 되기 위해 하는 일과 함께 그들 자신의 기술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로 알려지게 된 시몬의 집안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고기잡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이며, 두 아들이 그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세베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집에 있는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가족의 생선 사업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다시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최근에 막달라(Magdala)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종의 국내 산업 지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마도 가버나움이었을 것 처럼 어촌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가구 구조 내에는 생선을 건조하고, 소금에 절이고, 보존하는 전용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세베대 집안의 여자들도 가족 사업의 생산을 돕는 일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제 남편-슬래시-아버지-슬래시-주인이 궁극적으로 가사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단어 경제학을 제공하는 고대 세계의 과학.

그것은 오이코노미아(oikonomia), 즉 가정인 오이코스(oikos)의 통치 또는 관리라고 불립니다. 윤리학자들은 의무, 근면, 자비로운 보살핌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의 권위에 대해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 세대주들이 자신의 미덕이나 부족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엄격한 계층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가정에 대해 말한 내용을 읽어보면 그는 남성을 가정 내 자연적 통치자로, 여성을 자연적

주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은사와 한계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방식으로, 남자가 지배하고 여자가 주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입니다. .

그는 자녀와 노예에 대한 아버지의 통치를 자신의 백성에 대한 절대 군주의 통치와 비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통치 가치를 동등하지만 권력은 없는 시민 사이의 헌법적 통치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약간의 구별을 관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남편-주인-아버지의 권위를 상당히 분명하게 확립합니다.

유대인 작가들은 실제로 그들의 주장이 더 극단적이고 더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요세푸스는 가사 관리에 관해 간략하게 글을 쓸 때 법에 따르면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썼습니다. 굴욕을 당해서가 아니라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 로마, 유대 윤리학자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합니다.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의 열등함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가 정확히 어떻게 생각되는지에 관해 이러한 고대 자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고대 세계에서 여성이 소유물, 동산으로 간주되었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까지 가정의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단어를 실제로 사용한 그리스 로마인이나 유대인 작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예를 재산으로 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그들이 여성에게 동일한 언어를 적용하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고대 세계에 우리가 부과하는 일종의 고정관념일 것입니다. 아내는 가정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파트너로 여겨졌지만,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별로 인해 항상 하급 파트너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여성, 아내에 대한 이상이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었고 이 점에 있어서는 그리스, 라틴, 유대 작가들 사이에 상당한 만장일치가 있었습니다.

이 이상의 특징 중 하나는 복종입니다. 이는 요세푸스의 인용문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습니다. Plutarch는 음악의 비유를 사용하여 이것을 좀 더 예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결혼에 관한 조언에서 두 개의 음을 합칠 때 그 멜로디는 낮은 음에 속한다고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가정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동은 배우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남편의 리더십과 결단력이 발휘됩니다. 우연히도 우리는 고대 세계의 음악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 경험상 소프라노는 멜로디가 있고 그 아래 성부도 화음이 있는 게 익숙했는데, 그리스와 로마 음악은 반대로 낮은 연주 악기에 멜로디를 주거나, 낮은 악기에 멜로디를 주는 것 같았다. 노래하는 목소리, 그리고 더 높은 노래하는 목소리로의 하모니 또는 데칸트.

따라서 Plutarch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잘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미묘한 차이로 표현합니다. 그는 그것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일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합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입니다. 아내 또는 여성에 대한 고대의 이상의 또 다른 측면은 침묵과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침묵이 여성의 영광이라고 쓴 시인을 인정했고, 2~3세기 후, 매우 다른 환경인 기원전 2세기 예루살렘에서 벤 시라(Ben Sirah)는 침묵의 아내는 주님의 선물이라고 썼습니다. 그녀의 자기 훈련만큼 소중합니다. 분명히, 침묵, 즉 자기 표현을 자제하는 것은 복종하고 남편이 주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 이상의 세 번째 측면은 격리입니다. 여성은 집안의 사적인 공간에 머물고, 공공 장소라면 시장이나 일부 사막 사회에서는 우물과 같은 여성에게 적합한 공공 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서기 1세기 초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글을 쓴 유대인 작가 필로는 여성은 집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실내 생활에 가장 적합하다고 썼습니다. 처녀들은 문을 경계로 삼고, 완전한 여성이 된 사람들은 바깥문을 경계로 삼는다. 서기 100년경에 글을 쓴 비유대인 그리스 작가 플루타르코스는 좋은 여성은 남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많이 보이고, 남편이 없을 때는 집에 있거나 숨겨야 한다고 썼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남성들은 공공 장소를 폭풍처럼 장악했지만 여성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마지막이자 필수적인 측면은 성적 순결입니다. 익명의 신피타고라스주의 윤리학자는 여성의 가장 큰 미덕은 순결이라고 썼습니다. 순결이란 성적 배타성, 결혼 전 순결, 평생 동안 한 남자와의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어, 라틴어, 유대교 본문에서 확증됩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마카베오 4차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남성다움과 용기, 전장에서 남성들이 보여준 용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용기가 있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결국 자신의 여성적 덕목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그녀가 “나는 정결한 처녀라 내 아버지 집 밖에 나가지 아니하였노라” 고 말하는 것을 읽습니다. 순결을 촉진하는 격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자를 지은 갈빗대를 지켰다.

어떤 유혹자가 광야에서 나를 더럽히지 못하였고, 파괴자 곧 궤환한 뱀도 나의 순결한 처녀를 더럽히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성숙해가는 동안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한 명의 남성을 위한 성적 독점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결혼, 특히 고대 세계의 아내의 이상, 자녀와 그들의 현실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서 돌아옵니다. 고대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 특히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에 대한 의무를 이해하도록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이들이 양육과 양육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이라는 선물 자체에 대해 부모에게 빚진 빚을 결코 갚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모든 형태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이는 효도의 특별한 표시였으며, 노부모를 모시는 아들, 딸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본질적인 면에서 부모와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명예로운 가문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개인의 명예에 도전하는 빈번한 방법은 그 사람의 혈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사탄의 자손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당신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명예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혈통을 공격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교육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가정에서 시작되었지만 대개는 가난한 가족을 위한 가정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 무역과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뿐만 아니라 해당 가족이 속한 더 큰 그룹의 가치와 도덕을 배우는 것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종교적 교육은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첫째, 우리는 여기에서 뛰어난 예로서 신명기 6:6-9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 내의 핵심 텍스트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신조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여호와와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니라. 그러나 바로 다음, 또는 거의 다음으로 말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교육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마카비서 4서 18장 10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어머니가 이 집의 아버지가 어떻게 일관되고 참을성 있게 가치관을 심어 주고 이스라엘의 경전에 담긴 일곱 아들의 이야기와 희망은 그들이 경건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던 그 운명적인 날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약간 부유하거나 훨씬 더 부유한 가정의 남자 자녀의 경우 교육이 더 광범위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가족,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물론 상위 계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의 상위 2~5%가 여러 명의 노예를 소유할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있었다면 그 노예 중 한 명은 교육자로 기능할 수 있었는데, 그 노예의 주된 임무는 아이들에게 매너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기 시작할 때 줄을서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잘 했는지, 다음날 실제 선생님께 준비를 잘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흠, 교사들이 제게는 꽤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그러나 그 교사는 실제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교육학(pedagogy)이라는 단어는 그것에서 파생되었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종의 잘못된 연결입니다.

진짜 교사는 집 밖에 있을 것이고, 교육자는 무엇보다도 수업을 배우고 숙제를 완수하도록 하는 훈육가였습니다. 그리스나 로마 도시나 식민지의 시민들을 위해 실제로 거의 모든 도시에는 매우 제한된 집단, 즉 그 도시의 시민들을 위한 강력한 공교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대 도시에는 여전히 체육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체육관은 운동을 배우고, 스포츠를 연습하고, 신체적으로 단련하는 장소였지만 그것은 모두 훨씬 더 큰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체육관은 또한 시민들이 문법, 수사학, 논리학, 철학, 문학, 기하학, 음악, 그리고 고대 세계의 전체 커리큘럼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종류의 학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유대인의 맥락에서 이러한 다른 학습 영역 중 일부를 통합할 수 있지만 주로 토라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을 가르치고, 기껏해야 지혜 전통을 함께 엮는 데 초점을 맞춘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라에 대한 종교적 교육과 다른 종류의 비원주민 교육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가구의 마지막 층, 즉 가구의 최하층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노예 제도입니다. 노예 제도는 고대 세계에서 엄청나게 흔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예였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도시 환경에서는 4분의 1,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3분의 1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종종 군사적 정복이나 반란 진압의 결과였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가 국경을 확장함에 따라 무력으로 정복한 사람들은 종종 제국 내에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가 확장됨에 따라 제국 전체의 노예 가용성도 증가했습니다. 타키투스와 요세푸스 전체에서 노예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군대가 어디로 가는지, 노예가 만들어질 것인지를 알았고 본질적으로 1층에서 돈을 벌기 위해 거기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군대와 함께 여행하고 따라갔던 방법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군대에서 노예를 직접 구입한 다음, 이익을 위해 제국의 중심부에 더 가까운 곳에 다시 팔아야 합니다. 노예제도는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형벌이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났다면 노예였습니다. 노예들 사이의 단순한 출산도 이에 대한 또 다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집트에서 부채를 불이행하는 경우 빚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하기 위해 팔리는 불이행자가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람이 속했거나 그녀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고대 경제는 노예 제도 때문에 존재했으며 완전히 노예 제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세계, 로마의 부,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이 모두 적어도 간접적으로, 많은 경우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제국 전역의 노예제 제도와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세계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훌륭한 정보 제공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의 모든 것에 관해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살아있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이는 악명 높은 정의이지만 본질적으로 이를 포착합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노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노예는 살아 있고 망치는 살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망치와 다릅니다.

그러나 권리의 측면에서, 그리고 주인이 주인의 재산에 대해 갖는 권한의 정도 측면에서 노예와 망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노예이고 다른 사람은 운이 좋아서 노예라고 추론합니다. 즉, 그의 평가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단순히 노예를 사육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비굴하지 않은 사람들과 노예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불행 때문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 정복.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도시 국가가 도시 국가를 정복하거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곳 동쪽의 세계 대부분을 페르시아 제국이 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완전한 권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리학자들은 노예 소유자들에게 그 권위를 주의 깊게 행사하도록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권위를 남용하면 양측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썼습니다. 부분과 전체, 육체와 영혼의 이익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노예는 주인의 일부이며 살아 있지만 주인의 신체 구조에서 분리된 부분입니다.

모든 윤리에도 불구하고 노예에 대한 대우는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법적 대응이 없었습니다. 일부 윤리학자들은 주인과 노예 사이의 호혜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주인과 노예 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상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이나 우정, 상호주의 하에서 이야기한 관계는 이 작가들이 이 불평등한 관계의 틀 안에서 친절을 교환하려는 양측의 욕구를 키우려고 노력함에 따라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도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것을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종의 복지를 염려하지만, 너무도 염려하여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어느 정도 제쳐두기도 했습니다. 그 종에게 필요한 것, 즉 치유입니다. 그러나 노예의 삶의 모든 측면, 심지어 그의 출산까지도 주인의 힘과 권위 아래 있었고, 따라서 주인의 미덕이나 미덕의 결여에 전적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습니다. 주인.

노예는 매우 다양한 작업에 투입될 수 있으며 다양한 장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최악의 끝에는 배에 묶인 노예, 해군 선박이나 상선의 노를 젓는 노예 또는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는 종종 불과 몇 년 후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펙트럼의 가장 끝에는 황실의 노예도 있었습니다.

황제 가문의 노예 중 일부는 지방의 총독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했고, 지방의 총독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결국에는 해방된 사람이자 그들 자신의 이름을 지닌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에는 도시의 장인들을 위한 장소인 포럼 시장인 큰 아고라로 통하는 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즉 남문은 아우구스투스 가문의 자유민 두 명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첫째, 자유민들은 아우구스투스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원자로 여겼기 때문에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 그러나 또한 다른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황실 노예가 될 만큼 운이 좋다면 일부 노예가 얼마나 부유하고 강력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자연적인 가정 내의 친족관계에 대해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친족관계는 고대 세계의 사람들에게도 혈연관계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 1세기 초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필로는 친족 관계가 단지 혈통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유사성과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측정된다고 썼습니다. 필로는 또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유대인 생활 방식을 배도하는 것과 같은 이상을 공유하지 못하면 친족 관계가 해체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필로는 독자들에게 이방인 개종자들, 즉 족보적으로 유대 민족과 관련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촉구하면서 자연적 친족 관계보다 하나님과 유대 생활 방식에 대한 헌신을 앞세웁니다. 미덕과 종교를 위해 조국, 친척, 친구를 버리고 떠난 이방인 개종자들이 새로운 가족인 유대인 공동체에서 환영을 받도록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친족 관계를 위협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추종자들이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질적으로 혈통이나 족보로 연결되지 않은 가상의 친족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친절하고 비슷한 종류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의미에서 친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다른 약속을 매우 밀접하게 공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제자도를 위해 자연적인 친족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있음을 기대하셨습니다.

반면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전토를 버린 사람은 누구나 백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서클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고 어머니와 자녀가 되며, 동료 신자의 집과 동료 신자의 발이 이생에서 자신의 집과 발이 되어 잃어버린 것을 보충합니다. 자연스러운 친족 관계. 글썄, 우리는 신약성경을 보고 싶고, 특히 다음 강의인 베드로전서에서 이 배경이 초기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가상의 친족 집단.

이 새로운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친족의 정신은 어떻게 초기 교회의 관계 정신을 형성했습니까? 그리고 그 영향은 무엇입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초기 기독교 선포가 친족 관계와 친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명예와 수치의 가치를 반영한 것처럼 친족 관계의 가치, 친족 정신을 매우 명확하게 반영하고 가족을 가족에 대한 생각의 주요 은유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그 내적 관계.

신약성경의 문화세계를 강의하는 Dr. David deSilva 입니다 . 이것은 세션 5, 가족과 가정입니다.